

독자광장

독자 여러분의 엽서를 기다립니다.
엽서가 채택된 독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엽서를 보내실 때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고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십시오.

- 전자우편 : editor@kca.go.kr
- 문의전화 : (043)880-5743

독자엽서 보내실 곳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
'독자광장' 담당자 앞



축하드립니다.

독자엽서로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서미숙, 김지윤, 박태규
독자님께는 문화상품권(2만 원)
을 보내드립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소비자시대」

「소비자시대」를
“ 온라인에서 손쉽게 열람하세요! ”

— <http://www.kca.go.kr> —



독자엽서 | 2018년 11월호를 읽고

요즘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온 가족이 보건용 마스크를 외출할 때 사용합니다. 제품에 따라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필수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것도 중요하고, 허가받은 제품만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 구입 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인지 확인하면서 선택해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서미숙(전북)

소비자시대 11월호 상품테스트에 실린 두부에 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두부는 다양한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국민식품'이라 저희 집도 자주 해 먹는 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두부 17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찌개용 두부와 다용도 두부의 차이가 궁금했는데 해소돼 좋았습니다. 현재 두부는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보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데, 관계기관에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맛도 영양에도 좋은 두부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윤(경남)

소비자시대 24시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저감화 필요'기사가 유용해서 좋았습니다. 저희 집도 편리함을 지향하다보니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를 사용해서 먹는 편입니다. 일부 소스류 제품은 나트륨 저감화가 필요하다고 한만큼 나트륨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일부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만큼, 나트륨의 저감화 방안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와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박태규(인천)



건강정보 앱의
'손쉬운 병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 정보는 물론 길 찾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응급·야간·요양병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면
병원의 진료 가능 분야, 병원평가결과, 진료비정보 등
상세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